

무안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 4종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될 것 기대

무안군은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용미생물(EM)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26일 농업인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실수요 농가에 대한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농산물 유통시설을 미생물배양실로 개조하여 배양탱크와 개별포장시설을 갖추고, 오염 및 생균수 확인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연간 96톤의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경종농가에 공급한다.

또한 안정적인 미생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으며, 무안군이 공급하는 미생물은 농작물 병해충을 예방하고 지력을 증진시키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4종으로 영농시기에 맞춰 사용하면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대상은 무안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이나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미생물배양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미생물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생물은 보통 물에 500~1,000배로 희



석해 7~10일 간격으로 토양에 관주하거나 작물의 옆에 살포하여 사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생물 공급에 대한 설문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급시기와 방법을 개선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나가는 한편 농업 현장에 유용미생물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시험을 통한 효과검정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기 위원 위촉식

제2차 정기회의도 개최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민관복지협력력강화를 위해 제8기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8기 협의체 위원으로 29명(당연직2, 위촉직27)이 위촉되었으며 여성자원봉사회 김현자 위원이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새로 위촉된 제8기 협의체위원은 임기 2년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발굴연계, 특화사업 추진 등 촘촘한 복지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동이 불편

한 독거노인 가정에 태풍으로 무너졌던 연탄창고를 지원해주기로 논의하였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자 위원장은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위원들과 합심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갑수 영암읍장은 “제8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하며 민관이 서로 손을 맞잡아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적극 발굴하여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한빛원전함평군피해·예방대책위원회 2차 모임

“함평 바다도 피해보상 해야...국회·정부 등에 적극 요구”



함평군민과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함평군피해·예방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모, 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26일 2차

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모 위원장을 비롯해 34개 지역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한빛원전으로 인한 함평만 등의 온배수 피해를 주장하며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향후에는 국회·정부 등에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성모 대책위원장은 “함평만은 한빛원전과 불과 3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원전이 배출한 온배수로 인해 지역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 많은 해대 양식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어획량도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조사와 보상을 한빛원전 측에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향후 대책위를 조직화하고 객관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국회·정부·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최근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과 핵폐기물 처리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인식을 같이하는 군민과 지역사회단체들이 합심하여 발족했다.

지난 5월 1차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이날 2차 준비모임을 거쳐 7월 중순경 정식 창립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모집’

목포시에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직장경험을 쌓게 된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급한다. 만근 시 약 12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대학생 또는 부모 중 1명이 목포시에 주소와 두고 있는 재학생으로 휴학생, 방송통신대생, 사이버대생, 한방이라도 등·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등을 목포시 청년·일

자리통합센터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접수번호는 향후 추천번호로 배정된다.

선발 예정인원 20명은 전원 추천을 통해 선발하며 1학년 9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4학년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서와 모집공고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열린행정’ 내 고시·공고, 또는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061-270-8771)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20명 모집...하루 5시간씩 1개월 중소기업 등 근무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접수...시간당 9,230원 지급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발 후 코로나 19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 5시간씩 근무(중식시간 제외)하게 되며, 2020년 목포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9,230원을 지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 소통공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영광군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인·구직자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섰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는 직업상담사 4명이 상주하여 체계적인 구인·구직자 관리, 취업상담, 면접코칭,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상담사들이 매주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등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등록부터 채용지원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자에게는 취업컨설팅, 동행면접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무엇보다 개인별 심층상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활발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자



리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지원센터는 군민이면 누구나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영광군청 별관(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위치한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061-350-5517/352-7977~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